

당국의 과도한 시장개입, 이번엔 저축은행 금리논쟁

# “금리 여전히 높아” vs “더 낮추면 서민만 피해”

금융당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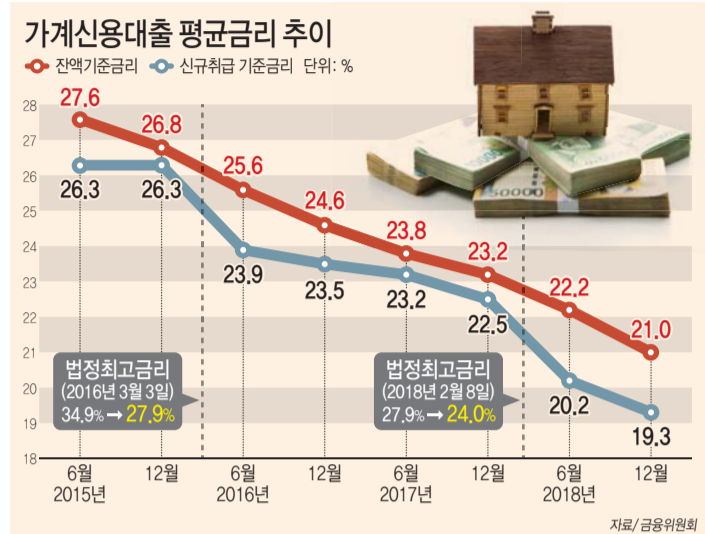
저축은행업계

지난해 12월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 평균 금리 19.3% 중금리대출 활성화 유도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추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금리가 내려갔지만 여전히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고,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중 일부를 저축은행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19.3%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금리가 내려갔지만 여전히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 대비 27.8%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대출 잔액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OK저축은행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의 비중은 무려 84.6%에 달했으며, SBI·웰컴·유진·애규온저축은행 등도 60~70%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중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화해 중금리대출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이 16.5%지만 은행의 경우 6.5%, 저축은행은 16% 등으로 차별을 둘 계획이다.

또 모집인 등 의존 관행 개선을 위해 모바일 같은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추진해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의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산정체계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난 1월 발표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중 일부를 저축은행업권 실정에 맞춰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고금리대출과 저축은행의 취급현황을 공개하고, 시장의 평가도 유도할 방침이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저신용자 ‘대출 난민’ 야기 원가구조 공개, 과도한 개입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고금리 부과 개선방안 추진에 대해 지나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저축은행은 낮은 수차례도, 대출규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체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대부업체 고객 비중이 줄어가고 금리대출 잔액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부업체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을 인수하면서 대부업체 고객이 저축은행으로 포함돼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가 인수한지 5년이 되는 해로, 올해부터 차츰 고금리대출 비중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2금융권 이상 이용차주는 상대적으로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기간을 단기(1~3년)보다 장기(5년)로 잡는 경우가 대다수다. 올해부터 대부업체

고객의 대출기간이 만료돼 고금리대출 잔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업계는 예대율 규제를 강화할수록 업계는 대출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예대율 산정 시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가중치(130%)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를 강화할수록 금리는 낮아지겠지만 저신용자(8~10) 대출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며 “저신용자가 제도권 보호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원가구조는 사업비용, 예보료, 판관비 등으로 과도한 금리를 산정하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시장 내 자율적 금리경쟁을 유도한다고 하면서 기업의 원가구조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 개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김재명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장(왼쪽부터), 윤건상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영진 동구지관 공업사 대표, 신덕순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대표, 김교란 KB국민은행 경서지역영업그룹대표, 맹철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장, 박정식 KB소호 컨설팅 일산센터장 등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 수원·고양에 ‘KB 소호컨설팅 센터’ 개소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KB 소호 컨설팅 센터’를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2곳에 신규 개설해 총 12개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KB 소호 컨설팅 센터’를 전국(서울 5개, 전국 5대 광역시 5개)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본점 내 전문가 상담 조

직인 ‘KB 소호 컨설팅 허브(HUB)’를 출범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동참하고 사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KB 소호 컨설팅 센터’는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자금조달, 세무, 법률, 특허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성미 기자

## KEB하나은행 청년직장인 응원하는 ‘월복리적금’

KEB하나은행은 청년직장인을 응원하기 위해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년, 2년, 3년제 중 선택 가능하며 분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2019년 3월 6일 기준, 1년제, 세전)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에 입사한 청년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 충족해야 한다.

/김문호 기자 kmh@

## KSANP “대부업도 ‘금융 서비스’로 변신해야”

사채 등 부정적 인식 탈피해야

대부업계의 한숨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0%에서 연 20.0%로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대부업계를 통한 자금조달도 제동이 걸렸다. 또한 개인회생 제도로 원금회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연대보증도 금지되는 추세다.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다.

과거 대부업은 고금리로 대손율을 만회해 수익을 확보했지만 이제는 대부업



도 위험관리를 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다. 즉, 대부업도 규모와 조직,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미 폐업하고 있는 대부업체 대부분이 영세 개인 대부업이라는 통계를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신용카드결제서비스 기반 핀테크업체인 케이에스에이엔피(KSANP) 관계자

는 6일 “대부업은 고금리 혹은 사채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서비스로 변신해야 한다”면서 “이제 대부업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금융서비스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SANP는 기존 금융권이 지원을 꺼리는 자영업자 시장에 집중,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물품대금서비스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신한은행, ‘디지털라이프스쿨’ 예비 창업자 3기 입학식 개최

신한은행은 6일 서울 성동구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에서 청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디지털라이프스쿨’ 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라이프스쿨은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창업자들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디지털라이프스쿨 3기 입학식에는 교육생 120여명과 1,2기 프로그램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참여해 3기 교육생을 환영했다.

신한은행은 청년 창업자들이 혁신을 통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강의, 전문가 1대 1 코칭,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등 다각도의 지원과 혜택을 12주에 걸쳐 제공한다.

/안성미 기자



이대훈 NH농협은행장(첫째줄 가운데)이 지난 5일 홍보모델들과 위촉식 행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NH농협은행 직원 홍보모델 18명 선발

NH농협은행은 지난 5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홍보모델 위촉식을 갖고 직원 홍보모델 18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홍보모델은 남자 6명, 여자 12명으로 학창시절 학교 홍보모델, 신문사 사진모델, 쇼핑몰 피팅 모델 등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NH농협은행

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TV광고, 홍보동영상, 보도 사진 및 상품 안내장 촬영은 물론 대내외 행사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대훈 행장은 “항상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한민국 1등 은행의 홍보 모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미 기자